

#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속도'... 내달부터 선고

니혼코크스, 변론 종결·7월 선고  
가와사키중공업·제이에스금속도 예정  
"日 기업, 쟁점 벗어나 지연 전략"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6건이 속도를 내면서 1심 선고기일이 잇따라 잡히고 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법지부의 도움을 받아 4년 여간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민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별관 106호 법정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현주씨 등

7명의 유족이 일본기업 니혼코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4년여 만에 종결됐다.

니혼코크스 측 변호인은 이날 "원고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 미쓰이 광산에 강제징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강제동원을 거짓으로 꾸며왔다고 문서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측이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김현주씨는 강제동원피해심의 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며 "80여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

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서 번역 등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7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 계획이다.

이 소송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장 송달이 지연됐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해 몇 년간 공전되다 지난해 변론이 시작됐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 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으로,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법원행정처-일본 외무성-일본 법원-당사자에게 전달됐다.

이번 소송 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올해 상반기 4건이 더 남았다. 내달

14일 광주지법 별관 209호 법정에서 조술씨 외 9명이 일본기업 미쓰비시머트리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같은달 22일 고(故) 김상기 씨의 유족 김승익씨가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상기씨는 1945년 2월 일본 효고현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다. 당시 순천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갑자기 징용 영장을 받고, 일본으로 끌려가 가와사키중공업의 기자 차량 제조공장에서 노역했다.

같은달 30일 광주지법 별관 206호에서는 이광래씨 외 14명이 훗카이도 탄광기

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 6월 25일 광주지법 별관 208호에서 이자한씨 외 1명이 제이에스금속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소장이 피고측에 전달돼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미루거나, 송달을 안하는 것 같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세세히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쟁점에서 벗어나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해묵은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일본 기업들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 공인중개사 행세 14억 사기친 일당 실형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14억 원원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은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범 17명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명

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승인이 이뤄지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공범 대부분은 이 같은 범행이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으나, 일부는 실제 집을 구하다 최씨의 꾀임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이기도 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많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여성보육과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23일 광주시교육연수원 주차장에서 안전장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나건호 기자

## 수주계약 청탁 인터넷신문 기자 법정구속

3개 업체 돌며 4800만원 챙겨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물품 계약을 따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

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4824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

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순천시의 휴먼지털이기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계약 체결의 대가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추징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고, 사업이 발주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같은 범행은 지자체 계약 절차의 공정성, 공무원의 청렴성

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금품을 교부한 사람들과 합의했어도 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정상이 아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